

## 낙태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 (\*) 딤후3:1-4, 마지막 시대의 특징: 불법이 횡행한다.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본성의 애정이 없는 시대  
동성에 문제는 많이 다룬다. 노아의 때, 룻의 때, 로마서 1장의 경고  
어제 대구 쿼어 축제, 교회들 저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 관련해서 더 중요한 이슈는 낙태(Abortion)일 것이다.

현시대 페미니즘의 영향: 마치 낙태는 여자들의 권리, 미국 같으면 대법관에게 늘 묻는 질문

- (\*) 낙태란 무엇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고의로 죽이는 것’ 즉 ‘고의적 살인’  
심장, 뇌파, 신경 시스템을 갖춘 아이 즉 모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이다:
- (\*) 비디오

낙태를 고의적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명권에 도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로 버서스 웨이드

- (\*) 미국의 경우 1973년 로 버서스 웨이드 논쟁(로 대 웨이드 사건), 미국 대법원 판결 가운데 가장 논쟁이 많은 사례, 이전까지는 여성의 생명의 위엄이 있지 않은 경우 낙태는 불법

- (\*) 페미니즘 시작

제소인은 제인 로(Jane Roe), 실제 이름은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 피고는 텍사스 주 델러스 법원의 변호사 헨리 웨이드, 노마 제소 1db 셋째 아이 임신, 유산을 원함, 강간, 경찰 보고서가 없다. 판결: 낙태 합법화,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 가능

“엄마는 미국 헌법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태아는 사람이 아닌 세포에 불과하다. 사람이 아닌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미국 국민에게 있다.”

모럴 매저리티에 대한 자료를 보면 미국 목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태아)을 사람의 편지에 의해 죽일 수 있다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듯한 충격”과 “나라가 망하는 듯한 세기말적 충격”을 받았다고 함. 이후로 급속도로 도덕 윤리 타락

그 이후로 지금까지 45년 이상, 6천만 명의 아이들 살해

- (\*) 아이러니하게도 노마 맥코비, 성폭행 주장 거짓말, 두 명의 페미니스트 변호사가 시킨 거짓말 양심 고백, 낙태하기 원했던 아이를 낳았고 수십 년 후에는 낙태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낙태는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명명된 법을 없애는 데 여생을 바치겠다.

미국은 낙태 합법화 이후에 6천만 명의 미국인 자녀들을 죽였고, 그 빈자리를 이민으로 채우다가 인종차별과 이슬람 옹호의 소재가 되어 첨예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 (\*)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 Pro Life, Pro Choice

우리는 프로라이프이다(미국의 공화당, 보수적 기독교인들).

인본주의 단체들은 프로초이스이다(민주당, 리버럴들).

중요한 것: 헌법의 문을 열면 다시 닫기가 어렵다.

## 한국 상황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2018년 5월 25일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허용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 6년 전 낙태 죄 합헌 결정, 또 한 번 위헌 결정 요청 헌법소원심판 청구

- (\*) 현재 결정을 앞두고 여성민우회 등 진보적 여성단체는 낙태 합법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낙태 합법화 영향으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현재 전 세계 낙태율 5위, 출생아 대비 낙태아 수 OECD 1위, 하루 1,000명 낙태 추정

2016년 임신 청소년 낙태 경험율 81%

출생을 최하위, 낙태법 합법화 청와대 청원 23만 건 돌파

한국은 낙태가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하지만 낙태죄로 입건되고 처분되는 건수는 전체 낙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불법 낙태 중 너무 적은 수만 적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낙태

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형법은 낙태죄를 금지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부가 위험한 경우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에만 허용하지만, 실제 행해지는 대부분의 낙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낙태의 범주에 속한다.  
 예컨대 기혼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아도 길러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경제적인 형편이 못되어' 등 가정형편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낙태가 대부분이다.  
 미성년자 혹은 미혼의 경우는 처한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출산 결정을 어렵게 한다.  
 낙태 예방은 단지 규범적 강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생명 보호를 위한 깊은 성찰과 윤리의식, 그에 따른 행동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전 세계 낙태 상황

미국 통계; 낙태의 93%,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이, 강간 근친상간의 경우 1% 미만  
 미국의 경우: 매해 120만 명의 아이들 살해, 전 세계 매일 125,000명, 매해 5천만 명  
 여아의 낙태 비율이 더 높다. 1970년 이후 여아 낙태 사망자는 1.63억 명, 특히 중국 남아 선호

### 왜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가?

우리는 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악한 일이 있다고 증언하는 것이다.

복음의 확산: 말을 통해 전달함으로

낙태 반대: 역시 말을 통해 정확한 진실을 전달함으로

### (\*) 잠24:11-12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 어둠의 세력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산부인과 의사의 고백

“교회 강단에서 낙태는 죄다, 살인이라는 외침을 들어 본적이 없다.” 이것 역시 목사의 직무 유기

### 성경은 생명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창1:26-27). 도덕적 성품 인간의 생명은 장엄한 것이다. 우주 공간에 이런 것이 없다.

(\*) 모든 인간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진다(시139:13-16).

(\*) 렘1:5, 모테에 짓기 전에..., (\*) 침례자 요한 눅1:15, 41 아이가 뛰놀았다.

모든 인간은 영원에서 영원토록 산다.

배 속에 짓기도 전부터 특별 사명,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도전. 여섯 번째 명령을 어기는 것

(\*) 정자와 남자가 만나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다. 완벽한 인격체

태아 생명 존중은 하나님 존중

낙태에 관한 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다.

Pro choice, Pro life 모두 알고 있다.

마음이 강박하여 알면서도 악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

###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미국 낙태 시술의 경우 13주 이후에 하라고 권장한다.

(\*) (\*) 13주 아이들을 보자. 13주: 7cm, 23그램

(\*) 22주: 27cm, 450그램, (\*) 24주 아이의 경우 태어나면 살 수 있다.

1. 존 파이퍼: 낙태 시술 의사,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

태아는 인간이다. 반응: 나도 안다. 우리가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인들에게 정의를 베풀어야 하지 않는가? 즉 여인들에게 재생 생식의 자유를 허락해야 하지 않는가? 즉 낳고 싶지 않은 아이를 낳지 않는 자유, 이것이 여성 인권을 부르짖는 오바마 같은 인본부주의자의 주장, 남자는 그런 자유가 있지 않은가? 여자도 가져야 한다.

2. 여자가 원하지 않는데 태아의 생명을 취하면 불법(태아는 인간이다), 여자가 원하면 태아의 생명을 취해도 합법(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3. 사회의 스키조프레이나 현상: 22주 아이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병원과 의사가 있고 22주 아이를 살리려

- 고 노력하는 의사와 병원이 있다.
4. 인간은 크기에 의해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180cm 아이, 50cm 태어나 다 같은 권리
  5. 생각할 수 없기에 괜찮다. 그러면 정신 지체아, 치매 환자들은? 태에서 나온 아이는 얼마 동안 생각할 수 없다. 그래도 사람이다.
  6. 8주가 지나면 모든 기관이 형성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탄원서

이제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욕심이 결합하여 배 속의 아기는 인간이 아니니 실험의 대상이 되어 배아 줄기 세포라는 이름으로 배아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주 내의 태아를 인간이 아니니 낙태해도 된다고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래 한국에 하루 낙태당하는 아기들은 하루 3000명이 아니라 실험용으로 대량 살해당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인간인가’라는 문제의 핵심에는 존재론적인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의 주장처럼 12주 이내는 낙태를 하자고 하면 12주 이내의 태아는 인간이 정말 아니어야 하는데 정말 12주 이내의 태아는 인간이 아닌가? 입니다. 그리고 12주 이내의 태아들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화 될 경우 인간의 장기를 팔고 사고 실험할 수 있는 끔찍한 가치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만약 12주 이내 낙태가 허락이 될 경우 만능 치료제인 배아 줄기 세포를 얻기 위해 거대 제약회사와 인간의 욕심은 더 많은 자신들의 합리화로 낙태를 늘여 갈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올바른 도덕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그 규범이 없을 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 까지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간과 양의 유전형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배아(胚芽)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가축의 몸 안에서 인간 장기를 키워 환자에게 이식하려는 전 단계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인간 세포를 갖 생성된 양과 염소의 배아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간과 양의 세포를 동시에 결합한 '키메라'(chimera) 배아' 개발 내용을 미국과 학진흥협회(AAAS)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 (\*) 인간과 돼지의 하이브리드, (\*) BBC 그림

돼지와 양의 장기 사이즈나 모양이 인간과 비슷하고 이들 장기가 신속히 자라나는 점을 고려해 이들 동물과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연구하며 낙태된 아기들의 장기를 팔며 실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일 낙태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낙태행위가 이루어지며 인간이 행하여서는 안 될 일까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체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절실합니다.

#### 생명권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

낙태 논란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지는데, 낙태권이란 용어 밑에는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다.

낙태 논란의 위험성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강조할 경우 태아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은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낙태옹호론자들은 이를 같은 위치에 놓으려 한다. 행복추구권을 위해 국가가 앞장서 노년층의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와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유사하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생명의 문제가 보편화된다면 정치·법적으로 언젠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 (\*) 차정화 경남미래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말

아기를 제거하는 게 권리라고?

일부 진보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하는 것이 여성의 고유 권리라고 주장한다.

태아가 임신부의 결정 아래 있는 부속물이라는 논리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나는 아기 재판기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여성단체의 주장 속엔 태아를 단순 '세포덩어리'로 보는 생명 경시 태도가 숨어 있다. (\*)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대표도 "태아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18~21일부터 이미 심장 박동을 시작한다"며 "그런데도 무책임한 페미니스트들이 자기결정권 논리를 앞세워 배 속의 인격체를 마치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낙태죄를 가장 일찍이 폐지한 나라는 영국이다. 1967년 동성애와 더불어 낙태도 합법화되었다. 낙태합법화를 기점으로 가정이 쉽게 해체되고 태아의 생명권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었다. 1972년에는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소송법이 개정되었다.

(\*)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합법화 된 후 2016년까지 시행된 낙태시술 건수. 연간 낙태 건수가 50년만에 1,000%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혼외출산이 급증하게 된다. 낙태가 합법화된 지 50년 후 혼외 출산율이 4.8%(1967년)에서 46.8%(2017)로 무려 10배가 증가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결혼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1952년 인구 5000만 명 중 35만 쌍이 결혼했으나 2014년 인구 6500만 명 중 24만 쌍 결혼했다. 인구가 30% 늘어났지만 오히려 결혼은 30%나 줄어들었다. 혼외출산만 많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1967년 3만4천 쌍이 이혼했고 2014년 12만 쌍이 이혼하여 이혼율이 350% 증가했다. 혼외출산과 이혼의 폭발적인 증가는 가정과 공동체의 해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한다. 가정의 급속한 해체로 인한 피해는 자녀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었다.

낙태법 폐지로 인해 생명존중 사상이 사라져 마침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 1990년 '인간 수정 및 배아 발생법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HFE) Act)' 제정이 그것이다. 그 결과 인간과 짐승의 하이브리드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된 인간을 소모품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실험들을 실행하게 된다. 가령 인간과 여러 동물들과의 교배를 실험한다. 치료용 맞춤형아기(saviour siblings) 생산 실험을 한다. 유전학적 선별검사로 유전적으로 문제없는 배아만 시험관 시술을 한다.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3부모 발생학을 인정한다.

### 성교육과 생명 교육 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 여기에는 태아의 생명도 있다.

올바른 성교육, 성 가치관 교육 필요, 책임 교육 필요

콘돔, 피임약을 주고 성교육하는 것이 잘못

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 차희제 원장, "피임은 100%가 없다. 임신이 되면 아이가 나온다. 누가 키울래? 엄마가 키울래, 아빠가 키울래? 감정에 휩싸여서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임 없는 성행위는 하면 안 된다. 임신했으면 도망가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 결론

낙태 합법화 요구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태아는 임신 18~22일부터 심장이 뛰며, 5주부터 손발 모양이 확인되고 뇌파가 측정된다. 6주가 되면 몸의 고통을 느끼고 8주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신체구조가 형성된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물을 필요도 없다. 생명을 죽일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 사회가 성윤리와 생명윤리가 강조되는 건강한 성문화를 통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교회는 창조신앙을 고백한다. 낙태, 인간배아 실험, 대리모 시술, 동성애 문화, 자살 등 반생명적 사조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함부로 다뤄지거나 조작·파괴되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태아가 파괴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번 풀리면 막기가 어렵다.  
낙태가 풀리면 그다음은 배아복제, 안락사가 온다.

마10:28